

# 선거 코 앞인데... 민주당, 연이은 부동산 악재

### 박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 전 월세 인상 사실 드러나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이해충돌방지법 내부서도 이견

재보궐 선거를 눈 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거리 유세 등을 통해 분위기가 반등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논란으로 경질된데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마저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서울 거리 유세에서 생각보다 지지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많고, 호남 향우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도 기대되고 있었는데 연이은 악재가 터졌다"고 우려했다.

다른 국회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안팎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는 선거 막판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악재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데 이어 이날은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까지 나서 "민주당이 부족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사견을 전제로 "이런 문제는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내일 선대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 '무주택자 총부채 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제한' 등 민심 달래기용 공약을 놓고 기존 정책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또 다른 고민거리다.

한 관계자는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수정이 아닌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여권이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내세우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놓고서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미래연구소 소장인 김기식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4촌 이내 제척회 폐제의 적용 대상이 거의 3000만 명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만 입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그런 사안들이 선거 악재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전이 된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와 선거 결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막판 표심잡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일 서울 은평구 증산로 사회적기업(유)다솜도시락에서 결식아이를 지원하는 도시락을 운반하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서예교실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해충돌' 정현복 광양시장 직권조사 요청

### 소유 토지에 도로 개설...임야 쪼개기 매입 박연숙 영광군의원도 조사

#### 민주당 전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일 "본인과 가족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설을 추진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당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에 보고하고,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정 시장이 본인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대도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별개로 당 차원의 신속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본인 소유 토지 외에도 부인 A씨가 2019년 8월에 매입한 진월면 신구리 땅(1084㎡) 인근 지역과 진상면 금이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개설 공사도 총사업비 367억 원을 들여 추진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진월면 신구리의 또 다른 토지 2필지(4774㎡, 4013㎡)를 매입해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 논란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대해 도민·당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최근 경기도 하남에 임야 쪼개기 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박연숙 영광군의원(비례)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건의하고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 징계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네거티브전 된 재보선

### 4·7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올수록 네거티브전이 난무하면서 여야의 '막말 경계령'이 무색해지는 양상이다.

강한 수위의 언사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와 있었지만, 선거 결과의 키를 쥐는 중도층이 막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난달 29일 지도부의 막말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문제성 발언이 이어졌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구 지역을 두고 "사람을 보고(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아 이런 결과(경제 꼴찌)가 생겼다"고 해 지역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을 '3기 암환자'에 비유하자 페이스북에 "부산이 아니라 민주당이 암환자"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연합뉴스

##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서울고법 판사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6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검찰 출신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제정되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입 대법관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정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 후보자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정 후보로 추천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최종 후보로 제정되면서 6년 만에 다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용빈, 정세균 총리와 '광주 군공항 이전'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정부 협의체' 구성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에게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정부 협의체를 통해 답보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에게 군공항 이전사업은 막대

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법정부 협의체'에 기재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고, 정 총리도 기재부가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기재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토균형발전과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법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회재 "여수공항 임시주차장 확대 5일부터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국회의원은 1일 "여수공항에 주차면적 150면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 확장돼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차장 설치 여수공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주차장이 운영을 시작하면, 기존에 여객 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던 상주직원 차량 150여대가 줄어들어 여객 주차 수용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여수공항은 국내 노선 운항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이용객의 증가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11월, 일 14편에

불과하던 여수공항 일 운항 편수는 올해 28편으로 늘어났으며, 공항 이용객은 2016년 50만명에서 2017년 59만명, 2018년 59만명, 2019년 64만명, 2020년 6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항 주차장이 만차되는 경우도 2016년 연간 22일에서 2017년 24일, 2018년 53일, 2019년 99일, 2020년 140일로 늘었다.

/오광록 기자 kroh@



#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총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충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 중개환영. 010-3605-5000

#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 - 1억1천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 문의. 010-6837-4700